문화 기획자 동명동 100 몰려든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은 한때 광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한 곳이었지만 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지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속에 제희갤러리, 소소한 풍경, 푸른길 갤러리 등 새로운 문화 공간과 함께 이색 카페, 아기자기한 음식점과 가게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명동으로 몰려들고 있는 문화기획자들이다. 그들은 일찌감치 작은 골목길과 그 안에 살아 있는 주민들의 정, 다양한 문화 기획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등 동명동이 가진 '매력'을 알아봤다.

컬쳐네트워크

공연장·카페·식당 연계 "동네를 문화대학으로"

문화복덕방 '탱글'

예술가는 무대 서고 주민에겐 악기 레슨

예기치 못한 기쁨 '사름'

남녀노소 인문학교 회원들 에세이 출간

▶동명동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복덕방 탱글의 '복덕방 레슨' 모습.

지역 최초 온라인 소셜펀딩 플랫폼 '마이밈'과 지식공유 플랫폼 '라이프매뉴얼' 등을 운영하고 있는 컬쳐네트워크는 최근 북구 오룡동에서 동명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5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새롭게 둥지를 튼 컬쳐네트워크는 절반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윤현석 대표는 "동명동은 구도심이지만 그 안에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그들의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사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컬쳐네트워크가 주목한 것은 동명동 주민과 가게들이 가진 콘텐츠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서비스 제공을 구상하고 있던 컬쳐네트워크의 생각과도 맞아 떨어졌다.

윤 대표는 "동명동에 있는 공연장, 카페, 문화공간, 오래된 식당 등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 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이 학생과 선생이 되고, 마을 공간들이 강의실이 되는 일본의 '시부야대학'을 롤모델로 동명동을 하나의 거대한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복덕방 탱글(Tangle)은 문화를 파는 복덕방이다. 전남대 예술대학 출신으로 첼로를 전공한 유은숙씨와 플루트를 전공한 안의정씨가 만든 탱글은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주민들을 예술인으로 키워는 기획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복덕방 레슨'이다. 동명동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름을 붙인 복덕방 레슨은 주민과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주민과 예술 강사들은 물론 동명동에 작업실을 가진 조각가, 화가 등이 복덕방 레슨에 참여하고 있다. 레슨을 통해 실력을 키운 이들은 지역 문화기관과 공연장 등에서 열리는 무대에 직접 서기도 한다.

청년 공부 모임 단체인 '예기치 못한 기쁨'도 동명동에 둥지를 틀고 활동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에서 일했던 최지만씨와 시민인문학교를 운영하는 김천응씨 등 '예기치 못한 기쁨' 회원들이 만든 공간이 인문살롱 '사름'이다.

올해는 사름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년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35회에 걸쳐 '시민인문학교'를 진행했고, 다른 단체들과 함께 '2014년 젊은 벗들을 위한 인생학교'를 기획하기도 했다.

'시민인문학교'는 단순하게 인문학 강좌를 듣는 모임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삶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후에는 각자 에세이를 써보기도 한다. 회원들이 쓴 에세이는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예기치 못한 기쁨' 3기 회원을 모집하고 문화 파티, 공연 등 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다.

최지만씨는 "기존에는 카페거리였는데 전당 개관을 앞두고 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카페 등만을 운영하는 구조보다는 다양한 문화 기획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미인길', '광주읍성길' 등 광주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해 도보 관광형 광주 테마길 가이드북 '무진별곡'을 펴낸 조현희 광주도시여행청 미인(미 : IN) 대표도 최근 동명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씨는 동명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중심으로 광주의 음식과 길을 엮은 '광주 음식 로드' 책자를 준비 중이다.

또 문화기획자 박연숙씨 등이 동명동에 디자인상품을 개발하고, 도자기 클래스 등을 운영하는 공간인 '하리하라'를 오픈했다. 이밖에도 지역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인 '아트 프로젝트 그룹 V'가 내년 동명동에 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한국화가 주대희씨도 작업실을 겸한 문화 공간을 꾸미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호랑이'

한국의 호랑이

오동섭 개인전 24일까지 무등갤러리

강인한 한국 호랑이의 위용과 용맹성이 고스란히 화폭 안에서 숨 쉰다. 터럭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묘사된 호랑이는 당당한 걸음으로 화폭을 뛰어나올 것만 같다.

40년 넘게 줄곧 호랑이를 그려온 '호랑이 화가' 오동섭씨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4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한국 호랑이 표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24일까지다. 오씨는 이번 전시에서 모두 30여 점을 선보인다.

호랑이 해에 태어난 오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진중한 작가다. 하지만 20대 들어 강인한 것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호랑이에 천착해온 그의 최근 작품들은 더욱 섬세해졌다. 한국 산야를 호령하던 호랑이의 기상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한국 호랑이의 원형을 찾기 위해 동물원을 제집처럼 드나들면서 호랑이의 다양한 생태를 관찰한 그의 노력 때문이다.

작가는 몇 해전부터 인간과 호랑이의 공생에 대해 고민해오고 있다. '침묵의 형상' 연작은 인간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서커스 노리개로 전락해버린 호랑이를 그린 작품이다.

오씨는 지난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며 가로 20m, 세로 1.8m의 대형 군호도(郡虎圖)를 그려 화제를 모았으며, 충장공 정분 영정과 최대성 장군 출병도, 의병장 김상태 영정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문의 062-236-2520.

/김경인기자 kki@

전남도립국악단 20·27일 '홍길동전'

크리스마스 캐럴을 국악 선율로 즐기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창극 '홍길동전'이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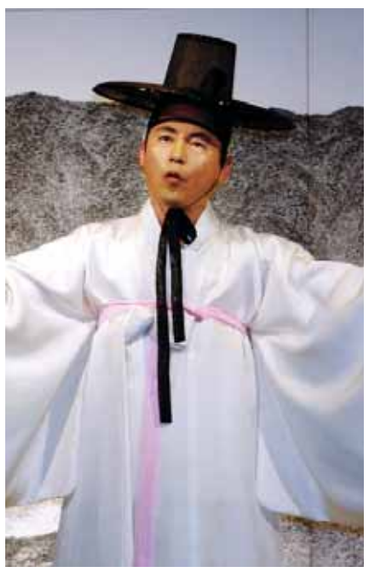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송년특집 토요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토요공연에서는 '국악기로 듣는 캐럴송 콘서트'를 열고 해금·대금·가야금 연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보인다.

또 농악놀이 채상 판굿과 민요 '동백타령', 판소리 흥보가 중 가장 해학적인 대목으로 꼽히는 '화초장 대목' 등 국악의 흥겨움으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

27일에는 가족 창극 '홍길동전'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또 신명나는 타악의 향연을 느껴볼 수 있는 '천년의 북소리'와 민중들의 소박한 삶 속에 묻어나는 애환을 경쾌하게 풀어낸 '남도민요', 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61-280-5833.

/오광록기자 kroh@



윤진철 소릿길 40년-Together 풍류

목포 문화공간 봄 22~24일 공연…2월 28일까지 전시회도

윤진철(51)명창이 소리 인생 40년을 맞았다. 초등학교 4학년, 동네 국악원에서 들려오는 국악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소년은 김흥남 선생을 만나 판소리에 입문했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소리꾼의 삶을 살았다.

광주 MBC '얼씨구 학당'을 진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30대 초반 전주대사습 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는 광주시립국극단 예술감독을 맡아 창작 판소리 '동기호태전' 등 젊은 감각의 작품을 내놓고 있다.

그를 항상 응원해온 지인들과 제자들이 그의 소리 인생을 축하하는 '윤진철 소릿길 40년-Together 풍류' 행사를 마련했다. 전시회와 축하 공연, 먹을 거리를 나누는 기획으로 장소는 그의 고향 목포에 자리한 '목포 1935-문화공간 봄'이다.

윤씨는 소리 하는 틈틈이 그림 공부에도 매진했다. 오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을 모아 '풍류 Ⅱ'를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22일 오후 7시 열리는 오프닝 행사는 제자들의 축하 공연으로 꾸며진다. 국악밴드 '타니모션' 리드 보컬로 활동중인 김소진양 등이 출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윤씨가 부르는 정통 '쑥대 머리', 제자 이이화씨가 부르는 국악 가요 '쑥대 머리', 밴드 '올디스 벗 뉴'의 기타리스트 박석주가 연주하는 '쑥대머리' 등 각양각색의 '쑥대머리'를 만날 수 있다.

23일에는 윤씨가 '미식콘서트-목포Ⅱ'를 통해 목포의 맛과 멋을 풀어낸다. 직접 요리를 하며 음식에 담겨있는 고향 이야기를 재치있는 재담으로 풀어내며 막간 공연도 준비돼 있다.

24일에는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내악팀 뮤즈앙상블이 축하무대를 꾸민다. 윤씨와'뮤즈앙상블'의 '쑥대머리' 협연 등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가 준비돼 있다.

문의 010-4460-68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춘향의 사랑이, 없다

극단 진달레 피네 20·21일 광주 문예정터

'정절의 아이콘' 열녀 춘향은 없다. 비밀로 무장한, 본능에 충실한 춘향만이 있을 뿐이다.

극단 '진달레 피네'가 고전 '춘향전'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 '춘향의 사랑이, 없다'를 공연한다. 20일 오후 4시·7시 30분, 21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문예정터 소극장. 25세 이상 관람가.

최영화(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 극단 상임 연출이 글을 쓰고 연출도 맡았다. 작품 속 춘향은 욕망의 그물에 걸린 인물이다. 그녀를 통해 영월불멸이자 최고의 가치로 꼽히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본다.

춘향 역의 무용수 김지나 씨가 맡았다. 월매 역은 소리꾼 김안순이다. 몽룡 역과 학도 역으로는 연극배우 문성하와 박규상이 출연한다.

미디어 아트 김형미, 주홍, 고근호, 양준호 작가의 작품이 영상으로 제작돼 바닥과 벽면 등에 투사된다. 안무는 박선욱 광주여대 교수가 안무를 맡았다.

최 씨는 연출의 변에서 "춘향은 비밀로 에둘러진 대한민국 세상처럼,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며 "세상의 어른들에 대한, 남자들에 대한, 권력에 대한 항변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문의 062-225-5114.

/김미은기자 mekim@

2014년12월15일~2015년 3월15일 제주도여행폭탄세일
나는제주여행을(2박3일) ₩109,000원에간다~♪
선박(씨스타크루즈)08:50목포항출발 ₩109,000원~ 항공(아시아나)15:40광주공항출발 ₩189,000원~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제주항도착직원미팅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 HOTEL:일반호텔(4~6인실) 중식:자유식 석식:호텔식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2일째 · 조식후-아침이 이쁜솔잎바다~외돌개 올래6,7코스트래킹 ·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불) · HOTER:일반호텔(4~6인실)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 석부작테마농원-감귤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3일째 · 조식후-민,공예품전시장☞조랑말체험 ·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불) 조식:호텔식 중식: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자유식
·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 · 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리이빙수산가도로
· 에코랜드-기차타고곶자왈(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출발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출발
※상기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인상:1박당30,000원추가★산악회별도문의
2015년 해맞이 제주성산일출봉
선상해맞이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
2014년12월30일~2015년01월01일 을미년(2박3일) 특별회원가₩220,000원
1일째 · 06:30광주역출발-08:50목포항출발 · 13:30목포항도착미팅-한라수목원-도깨비도로 · 용두암-용현(흔들흔들구름다리) 숙소:일반호텔(4~5인실) 조식:간편하게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2일째 · 조식후-07:30출발-08:40도착-09:00예약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약2시간30분) · 중식후-새연교(새로운인연을맺는곳) · 감귤타기체험-석부작테마농원 · 악천사-서커스월드(해피타운) · 숙소:일반호텔(4~5인실) 조식:호텔식 중식: 고등어조림 석식:호텔식
3일째 · 2015년01월01일 조식후-05:30출발성산일출봉선상해맞이(유람선) · 섭지코지-에코랜드...기차타고자연원시림으로... · 중식후-제주민속마을체험 · 농수산판매장-해녀촌..석식(전복죽) · 16:00제주항도착및출발 · 21:30목포항도착 · 22:50광주역도착 조식:떡국 중식: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전복죽
포함사항 : 여행자보험,선박료,전용차량료,숙식비,전일정입장료,간식 불포함사항:개인경비,기사,가이드팁(1인₩10,000원)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다 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무박2일, 1박2일 회원님을모십니다
기간:2015년 1월10일(토)~2월01일(일)까지
장소: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출 발 지: 광주역23:00집결,23:30출발
포함사항: 전용버스,입장료,줄낚시,조식,중식(상품권),여행자보험
회 비: 주중 ₩89,000원 주말(금,토,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08:00출발-남이섬-강원도화천군숙박
2일째 ▶ 조식후-산천어축제장-15:00출발-광주
포함사항:전용버스,전일정입장료,숙박(모텔4인1실), 줄낚시, 식사4식(중식2회,석식1회,조식1회),여행자보험
회 비: 주중 ₩169,000원 주말(금,토,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병구 HP : 010-3999-3226
참제 산악회 매월 첫제주 화요일 투암동 07:30 광주역 08:00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홍보이사:문병구 HP.010-3999-3226
※문의처: 해외,국내,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북구효산로5 ☎062)267-8580 ★ 담당자:문병구H.P:010-3999-3226 FAX:062-267-8581